

대한양계협회소식



제2회 이사회 개최 논산종계지구 승인



지난 30일 본회 지하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2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요추진사항으로 한·미 FTA 대책마련 상황,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 운영상황, 전국양계인대회 추진방안, 양계자조금 추진상황 등이 보고 되었다. 또한 제주 도지회 영광근 도지회장 퇴임과 아울러 본회 이사직이 사임되었으나 2008년도 본회 정기총회 시 전임원이 새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신임이사 선임은 보류되었음을 보고했다. 한편 의결사항으로 논산종계지구 설치승인(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어 2007년 5월 31일자로 설치승인되었으며, 임원협찬금 거출(안)은 기존 임원 1인당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본회 고문(원로) 간담회 개최 양계산업 발전방안 제시



본회는 지난 5일 오봉국 고문을 비롯한 6명의 양계업계 고문(원로)을 초청하여 양계업계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한미 FTA협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자조금 등 양계업계의 당면 현안에 대해 원로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사업 방향에 반영코자 개최하였다.

원로들은 한미FTA 협상도 문제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환경친화적인 양계사업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계업을 하면서 소방법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고쳐야할 사항들도 지적하였으며, 시예방에 적극적인 대처도 당부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오봉국, 장대석, 정선부, 박근식, 김교석 고문 및 한성욱 충남대 명예교수가 참석하였으며, 협회에서는 최준구 회장과 이언종 부회장이 참석하였다(관련기사 78페이지 참조)

환경스페셜 제작팀과 인터뷰 과장보도 자제 요청, 현실과 차이 커



지난 25일 KBS 환경스페셜 예고로 방영에 앞서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과 오세을 경기도채란분과연합회 회장, 이덕선 난가조절위원, 김현성 산란계발전협의회 총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를 방문한 KBS 환경스페셜 제작팀과 인터뷰를 가졌다. 케이지 밀집사육, 강제환우, 디비킹, 항생제 남용문제를 방송에서 언급할 계획을 가진 제작팀에게 현실과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각 사항별로 자세한 설명 및 방송중지요청 또는 대폭 수정요망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의견을 전달하였다. 프로그램은 30일 오후 10시에 방영되었다.

프로그가 방영된 후 현실과 다르게 편집되거나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PD를 만나 전달하고, 차후 긍정적인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 임의자조금 우선 추진키로



지난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회장 최준구)를 비롯, 농협(상무 남상우),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의 3개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05년 12월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정족수 부족 등으로 4차례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6월 중순경 회의가 소집이 되더라도 빨라야 12월경부터 의무자조금의 거출이 시작되어 시기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올해는 계열업체의 협조로 임의자조금을 거출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대의원총회를 열어 적어도 올해 중 의무자조금이 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산란계자조금 추진회의 산란종계업체, 소비홍보지원금 긍정적 검토

지난 5월 30일 본회 지하 회의실에서 주요 산란종계업체 대표 2인과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채란인이 참석한 가운데 산란계자조금 추진회의가 열렸다. 지난 3월 채란분과위원



회 결의사항에 따라 각 지회·지부별 회원농가를 통해 산란계자조금 부회장 수납 건 동의서를 취합한 가운데 산란계자조금거출 수납기관을 부회장으로 추진의사를 전했지만, 수납 불가의사를 거듭 밝혔다. 산란종계업체는 산란업계 불황 해소 차원에서 매년 일정 금액의 소비홍보지원금에 대해 찬조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혔다.

종계DB추진협의회 개최 종계DB 효과적인 활용방안 논의



종계DB추진협의회(위원장 이연종)가 지난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회의록보고 및 그 동안 추진되어온 종계DB자료 보고가 있었으며 협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의사항중 종계 DB자료공개 및 활용방안은 종란 및 실용계병아리 예상생산량과 최대 6개월까지의 병아리 생산수수

를 추가로 공개키로 하고 국·공립연구기관에 자료를 협조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한 종계DB출장방문 조사주기를 산란피크 이후 10주간격으로 4차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자료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대로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종계농가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종계 DB전산프로그램 보완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한영농조합법인 본회 직원과 단합대회 가져



다한영농조합법인(조합장 이만형)은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고골산장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직원을 초청해 단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다한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채란업을 하는 젊은 양계인들의 모임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다한 전문수의사를 통해 질병 및 사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단합대회에서는 최근 채란업 실태 및 현안과 함께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양계산업 피해정도와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갖춰야 할 것을 논의하였고, 족구경기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종계부화업 관리강화를 위한 축산법령중 개정이 필요한 내용

본회에서는 종계부화산업의 안정적 발전대책으로 백세미생산과 종계부화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축산법령중 개정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법령명	현행	개정요구(안)	사유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3항의... ②항(현행과 같음) ③항 1~4호(현행과 같음) 5. 사용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종 한·육우와 정소기의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에 한한다) 6~7호(현행과 같음) ④항(현행과 같음)	제 24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의... ②항(현행과 같음) ③항 1~4호(현행과 같음) 5. 사용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종 한·육우와 정소기의 변경 또는 종계업식계군의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에 한한다) 6~7호(현행과 같음) ④항(현행과 같음)	○ 법 적용조항 정리 ○ 종계업 등록을 한 자가 매회 인식되는 계군을 등록함으로써 종계업에 대한 수급관리 및 시 등 닭 질병·방역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제 25조의 2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부화업(현행과 같음) 가. 종계의 알	제 25조의 2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부화업(현행과 같음) 가. 검정기관에서 확인된 종계에서 생산된 알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계통이 확실한 종계에서 생산되어야 소비자(생산농가)의 피해가 없음. ○ 법 적용조항 정리 ○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닭(일명 백세미)생산이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산란실용계를 이용한 생산으로써 종계의 역할을 함에 따라 전염병 예방과 검정 대상에 포함하여 종계업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
	나. 법 제 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나. 법 제 22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 에 의하여 생산된 알, 이 경우 종계에 준하는 관리를 위하여 제 5조 제2호 및 제 9조 제2항 내지 제 5항을 준용한다.	○ 종계의 사육동향 및 계군별 관리를 위해 종계업 변경신고시 일반검정을 실시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키 위함 ○ 종계의 수급조절 및 닭 질병방역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축산을 생산촉진에 기여
	2. 종축업 (종돈업에 한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종축업 (종돈업에 한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설)	다. 종계업자는 매회 인식되는 계군에 대하여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이 행하는 검정확인서를 인식 일로부터 5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것	

채란분과위원회

환경스페셜 방송으로 채란업 피해 우려



지난 1일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개최되었다. 지난 5월 30일 KBS 환경스페셜 특집으로 “산란기계 닭”편 방송에서는 케이지 밀집사육, 강제환우, 항생제 남용 문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질병의 허구내용과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과 자연란의 절대 비교치, 사육밀도 등 현실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정확한 전문지식 없이 방영한 것에 대해 채란업계 의 큰 피해를 우려했으며 대책안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항의시위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국내 전반적으로 위생적인 사육조건에서 계란이 생산되는 현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방송사측에 요구할 것으로 결의하였다. 또한 양계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산란계임의자조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하였다.

종계분과위원회

양계업 현안과 극복방안 논의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가 개최되었다. 토의 안건으로



종계·부화 산업에 대한 현안과 극복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쿼터제 파기 이후 지속적으로 원종계의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복 수요를 겨냥한 생산가담계군으로 인해 종계 입식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방송매체 등을 통해 소비홍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는 육계자조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계인 역시 더욱 관심과 협조를 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부소식]

제주도지회 계란 등급판정 시행업소 지정 개소식

최근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가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계란등급제 도입을 통한 계란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내에서는 제주도지회(지회장 김해규)가 처음으로 축산물 계란등급판정 시행업소로 지정되어 15일 지회 광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등급란 공급에 들어갔다. 제주한라영농조합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도지회는 지난해 집하장센터 신축 및 등급판정소, 계란포장 작업장을 구비하면서 금년 2월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시행 지정업체를 승인

받은 바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이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등급란 생산공정 시범 등 개소식 행사가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으며, 김해규 제주도지회장을 비롯, 차우진 제주도청 농수축산국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최흥근 계란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회원(조합원) 및 마트 등 계란유통담당자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6.1 6월 편집위원회
- 6.5 협회고문 초빙 간담회
- 6.5 한국양계농협 사업전이용대회
- 6.7 양계농가대표 KBS 방송국 항의방문
- 6.7 한미FTA관련 농대위 대표자회의
- 6.8 역학조사위원회 회의
- 6.13 6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
- 6.14 한국축산경영학회 2007년도 하계 심포지움
- 6.15 다한영농조합법인 초청 단합대회
- 6.18 개방대비 FTA대책 토론회
- 6.20 기금관련단체협의회 발족
- 6.21 종계DB추진협의회